

일본 면 방적 - 새로운 사업 스타일로 변질

중국의 면 방적 산업은 끊임없이 생산 시설을 증설하고 있는데, 그럴수록 일본의 면 방적 산업은 해마다, 공장이 폐쇄되어 위축의 길을 걸어 왔다. 이러한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므로, 중국에는 일본의 면 방적 산업이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나 하는 기우도 한 때는 있었겠지만, 요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위기 의식을 극복하기 위하여, 일본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개발 도상국들이 따라 올 수 없는 새로운 일본 스타일의 면 방적 산업으로 변질하고 있다. 그러면서 고부가 가치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중저가의 양적 상품은 코스트가 싼 개발 도상국에서 생산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항하고 있다. 그런데 지금도, 과거보다는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해지기는 하였으나 시설 축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스타일로 변질의 불가피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뚜렷해지고 있다.

◎ 중국의 면 방적에 도전하는 일본의 공장들

일본 방적 협회의 회원사가 보유하고 있는 운전 가능 정방기는, 1년만에 25만추가 줄어 2003년말 시점에서 178만추가 되었는데, 앞으로도 계속 줄 것 같다. 2004년 3월말에는 닛신보의 6만추, 곤도 방적소의 5만추, 가네보 섬유 5만추가 가동을 중지하였다. 그러므로 약 16만추가 줄어 총 162만추대 규모가 되었다.

일본의 면 방적 시설 규모는 1974년의 피크(peak)시에 981만추와 비교하면

1/6 이하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. 그런데 중국 면 방적 시설 규모가 일본의 피크시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7,000만추 규모로 팽창하였음을 생각하면, 200만추도 안되는 일본의 시설 규모는 중국과는 비교 대상도 안되는데, 그런데도 일본에는 앞으로 계속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.

구라보는 2004년 3월로 그 동안 추진해 온 3개년 중기 경영 계획을 끝맺으면서 최종 연도의 경상 이익 목표를 20% 초과 달성하였으며, 전년과 비교하여 40%의 이익 증가 실적을 올렸다.

◎ 일본 고유의 생산·판매 방식 창조

일본 내에 있는 공장들은 일본 내 수요가 줄면 그에 따라 설비를 줄이던 것이 한계에 도달하여, 더 이상 삭감하면 일본의 면 방적 산업이 뿌리째 무너질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. 일본 내 생산이 어렵게 되면 일본 내의 설비를 완전히 없애고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상사(商社)의 사장들은 생각할지 모른다.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국내의 자체 생산 설비가 완전히 없어지면 제조업의 생명선인 기술이나 연구·개발의 장인 정신이 끊어짐을 우려하고 있다.

도요보나 후지보는 지금 일본에 두 개 방적 공장밖에 없으며, 다이와보도 자회사에서 두 개의 방적 공장을 갖고 있고, 시키보도 자회사까지 합쳐서 두 개의 방적 공장을 갖고 있으며, 유니티카 텍스타일은 방적 공장이 하나뿐이다. 이와 같이 과거에는 규모가 큰 방적 공장들이 지금은 생산 설비를 대폭 줄여 최소 한도의 설비만을 남겨 두고 있다.

이들 면 방적의 경영자들은 최소 한도의 시설에 투자하여 소수 정예로 만들려는 기운이 커지고 있다. 이러한 움직임은 물론 시설 규모보다도 이웃 여러 나라들이 추격할 수 없는 품질이나 신상품과 단납기(短納期) 체제로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려는 것이다.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차별화된 새로운 방적사를 연이어 개발하고 소로트일지라도 고부가 가치로 경영을 계속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이와 같은 면 방적 회사들의 도전은 시작에 불과하며, 다품종·소로트 단납기 생산 체제로 공장의 조업을 유지하려면 생산면뿐만 아니라 판매면, 마켓면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 적합한 전략이 필요하다. 일본의 면 방적 산업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, 일본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경영 방식을 창조하기 시작하였다. ♣